

셰익스피어에서 울프까지... 런던 문학기행

문학의 도시, 런던

엘로이즈 밀러·샘 조디슨 지음
이장아 옮김



“런던에서 술과 문학은 진과 토닉이나 맥주와 진밀 감처럼 늘 함께 해왔다. ‘캔터베리 이야기’도 런던의 어느 술집(테버드 여관)에서 시작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는 포도주가 혈액처럼 퍼져 있다. 새뮤얼 피프스는 아침으로 맥주를 마셨고, 낭만파는 장밋빛의 포도주를 사랑했으며,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항구에서 거나하게 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버지니아 울프 등이 거처한 런던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의 도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버지니아 울프, 아서 코난 도일, 바이런 경...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작가들이다.

또 하나, 이들은 모두 런던을 거쳐 갔다. 이들에게 런던은 문학의 도시였다. 거리마다 문학적 기운이 배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꽃피는 그런 창작의 산실이였다. 이들 작가들이 들렀던 곳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18세기 영국 지성을 대표하는 새뮤얼 존슨은 이런 말을 했다. “런던이 지겨운 사람은 인생이 지겨워진 사람이다” 그만큼 런던 구성구석에는 문학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난다. 언급한 대로 런던은 위대한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영감의 화수분과도 같은 곳이다. 셰익스피어 희곡이 상연되던 극장, 찰스 디킨스가 즐겨 찾았던 술집들, 버지니아 울프를 비롯한 블룸스버리 그룹 멤버들이 모였던 장소,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극이 울려지던 웨스트엔드 극장가, 유서 깊은 출판사와 서적상들이 이르기까지 곳곳에 문학 거장들의 숨결이 배어 있다.

마치 조이스에게 더블린이, 폴 오스터에게 뉴욕이라는 도시가 영감과 문학적 자양분을 주었던 것과 유사하다.

런던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을 조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엘로이즈 밀러와 편집자인 샘 조디슨이 펴낸 ‘문학의 도시, 런던’은 런던의 역사, 문화, 문학의 이야기를 다룬다. 모두 21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스토리는 독특한 무늬처럼 이채롭다. 저자들은 런던을 매개로 작가와 작품

을 들여다보며 런던이 왜 문학의 도시인지지를 조명한다.

영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창기 문학의 후원자 역할을 한 엘프레드 대와과 제프리 초서, 셰익스피어 같은 불멸의 작가들이 등장한다. 여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급진주의자, 셸리와 바이런, 키이츠, 워즈워스 등 낭만파들의 사랑과 미스터리한 죽음도 다뤄진다. 빅토리아풍의 작가들 예를 들어 찰스 디킨스, 오스카 와일드, 테니슨 등의 이야기와 아동문학의 대가들도 거론된다.

책에는 작가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와 지도 등도 소개돼 있다. 지도를 따라 늘어난 가게와 상점에 둘러 당시 작가들처럼 차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설록 흡츠 시리즈 팬들이라면 흡츠와 왓슨이 즐겨 찾았던 ‘심슨스 인더 스트랜

드’라는 식당을 찾아가 당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작가의 대표 작품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접하는 것도 큰 소득이다. 책을 읽고 런던의 거리를 걸어보면 알찬 여행이 될 것도 같다.

“1849년에 런던에 도착한 허먼 멜빌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스트랜드 근처 크레이브 스트리트 25번지의 하숙 집에서 지냈지만 멜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실제 장소는 타워 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잡하게 그려진 포스터를 목에 건 거지를 만났다. 포스터 속 고래는 그의 배를 파괴하고 신세를 망치게 한 고래였다. 그 순간 ‘모비딕’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울렛북스·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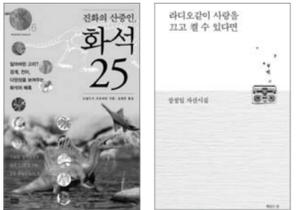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진화의 산증인 화석 25=이 책은 선캄브리아대 남세군 덩어리들부터 오늘날 인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의 진화사를 담았다. 다양한 생물의 기원을 추적하고, 한 종류의 유기체가 다른 종류로 전이되는 과정을 엿보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거대하고 기괴한 과거 멸종 동물을 보게 된다. 이 책에 소개된 화석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과거 지구 생물상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눈을 열고 잃어버린 과학적 상상력을 되찾아줄 것이다.

<뿌리와이파리·2만8000원>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당혹하고 새로운 도시적 감수성과 불온한 시적 상상력으로 한국 시단에 ‘장정일’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등장했던 장정일. 그의 이번 자선시집은 독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그의 대표 시집 두 권과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다섯 권의 절판된 시집에 수록된 시들 중 시인이 한 편 한 편 직접 골라 엮었다. <책읽는섬·9000원>

▲필연적 부자=이 책은 무일푼 청년에서 1000억대 자산가가 된 주얼리 업계 황금손 이재호 회장의 성공철학을 담은 책이다. 이 회장이 50년 경력으로 깨달은 부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부의 원리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어떻게 작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그가 밑바닥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주얼리 기업을 일구고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된 비결



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쌤애플라이프·1만4000원>

▲농촌생활 교과서=이 책은 농촌생활의 이모저모가 담겨 있다. 농촌에 살 때 필요한 살림살이를 만들고, 제철에 맞는 작물을 가꾸며, 직접 농사지는 채소와 과일로 먹거리를 만든다. 이처럼 농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과 기술과 지식이 잘 정리돼 있어 농촌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농촌에서 보내는 일상과 하루를 체험해볼 수 있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생활의 매력을 알려주는 동시에, 농촌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전달한다. <성미당출판·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내가 도와줄게=인형을 잃어버려 슬픈 오소리와 인형을 찾아 주기 위해 애쓰는 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곰은 슬퍼하는 친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오소리를 도와주기로 한다. 서툴지만 오소리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곰과 곰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걱정을 잊고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오소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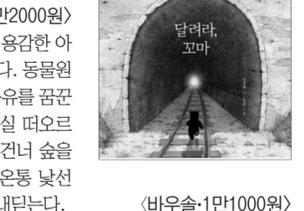
<이름아이·1만2000원>

▲악어 엄마=우물쭈물한 거죽, 날카로운 이빨, 매서운 눈빛.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무서운 악어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악어 엄마는 아주 가까이에서도, 아주 멀리서도 아닌 곳에서 새끼들을 지켜본다. 늘 새끼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악어 엄마의 이야기는 주어진 환경에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

<풀빛·1만2000원>

▲달려라 꼬마=이 책은 동물원을 도망친 용감한 아기 곰의 아름다운 여정을 담은 시 그림책이다. 동물원 창살 너머 달을 바라보며 아기 곰 꼬마는 자유를 꿈꾼다. 어느 날, 우리 안 용당이 위로 달이 동실 떠오르고, 꼬마는 달을 타고 달장을 넘어 개울을 건너 숲을 향해 달려간다. 철길, 고속도로... 주위는 온통 낮선 곳이지만, 꼬마는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바우슬·1만1000원>



모난 돌같은 기억도 언젠가는 빛나는 추억

반짝반짝

정여울 지음



문학평론가 정여울과 출판사 청년의 상상이 울해 시도한 ‘월간 정여울’ 프로젝트는 매달 한권씩 책을 펴내는 기획이다. 감성을 깨우는 12개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제목 삼아 그녀는 매달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중이다.

지금까지 첫 권 ‘뚝뚝’에 이어 ‘콜록콜록’, ‘까르륵까르륵’, ‘와르르’, ‘달그락달그락’ 등 5권이 독자들을 만났고 이번에 ‘반짝반짝’이 출간되면서 긴 여정의 절반

을 마무리했다. ‘내안의 빛이 되어준 말들의 추억’이라는 부제가 붙은 ‘반짝반짝’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다. ‘결핍하면 상처받고, 너무 자주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그녀는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타인의 말들을 그리워’ 했다. 그런 그녀에게 ‘빛이 되어준 말’을 건넨 이는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였다.

그녀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에 뜨끔해 하다 선배가 전해준 ‘가시는 빠고 날은 세워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날카로운 모서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한다. 또 소설 ‘길버트 그레이프’를 소개하며 ‘가족’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보게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길리언 폴린의 ‘나를 찾아줘’ 속 주인공을 통해 평범한 삶의 가치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것’ 등에 대해 들려준다. 그밖에 ‘가끔은 존댓말이 필요한 시간’, ‘완곡어법, 에둘러 말하기의 비밀과 폭력’, ‘우리 안의 극우에 관하여’ 등의 글도 만날 수 있다.

‘월간 정여울’을 읽는 즐거움 중 하나는 매일 소개되는 화가와와 만남이다. 남경민, 에두아르 뷔야르, 오딜롱 르동에 이어 이번에는 ‘무지개의 색을 훔친 화가’로 불린 독일 작가 프란츠 마르크(1880-1916) 작품이 담겼다.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30여편의 작품은 보는 내내 행복하다.

한편 시리즈의 절반을 마친 기념으로 컬러링북 ‘I love you, but I love me more’를 사은품으로 출간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유준선이 사랑, 꿈, 희망, 도전, 자아를 주제로 그린 그림과 함께 ‘그래,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잘 있지 말아요’ 등 그녀의 저서에서 뽑아낸 글들을 함께 실었다.

<천년의 상상·99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씽씽~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2~3년만 가는 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펜션건물 맞춤형 방수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061) 284-0485
여수 (061) 683-0485
순천 (061) 726-0482
광양 (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